

제1차 규제개혁 추진회의

이제는 규제개혁을 건수 위주로 풀어나가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. 실제 사례를 하나하나 놓고 여기에 걸려 있는 투입 시간이나 비용을 분석한 뒤 유사사례를 일괄 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. 결과적으로 규제의 가짓수 문제가 아니라 통과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더 큰 문제입니다. 규제심사과정에서 장관들이 회의를 통해 한꺼번에 일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.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한 규제는 이를 해석하느라고 시간을 소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 만약에 건수 위주로 할 경우에는 잘못하면 필요한 환경이나 노동관련 규제도 풀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의견청취 절차에서 소요되는 기간도 며칠 내에 하지 않으면 이것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기간을 줄여나가야 합니다. 기존의 규제를 관리할 때 완벽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돼서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. 모호한 규정은 국회와 민원인의 불만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해서 추진해 주십시오.

규제개혁회의는 원칙적으로 총리가 주재해서 운영을 해 주십시오. 민원이 여러 개가 걸려 있는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원스톱 서비스를 대행해 주는

방안에 대해서도 규제관리차원에서 별도의 주제로 검토·관리해 달라. 세 가지 과제가 진행되는 상황을 부처혁신 시범과제로 채택해 규제개혁에 관한 체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.